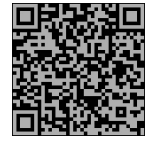


올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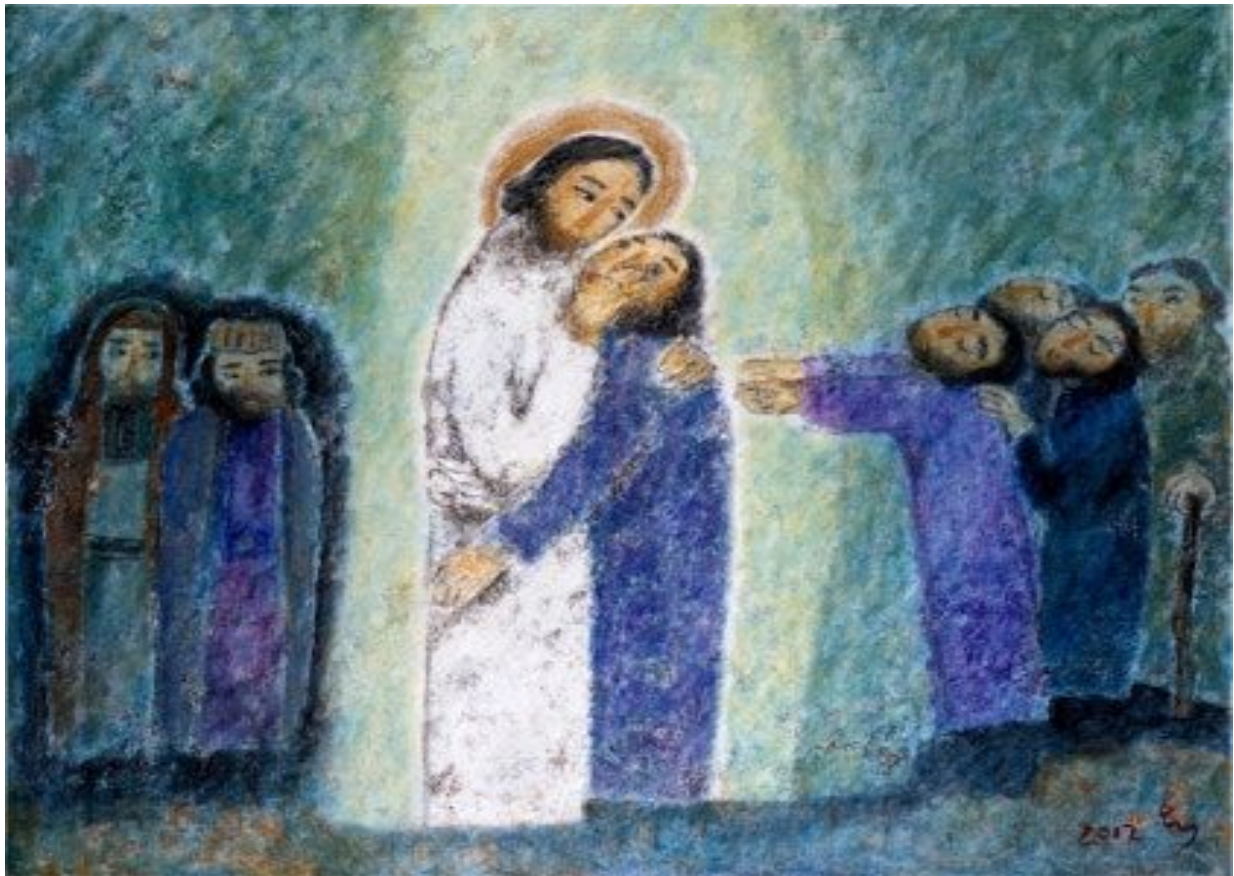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12주일 (2024년 6월 23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 4,41)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 그림 김옥순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녀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4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연중 주께선 나의 피난처 59

경쾌하게 *p* 강칭란 작사 James McGranahan

1. 주께선 나의 피 난 처 의지할 곳 주님 뿐
 2. 내갈길 아득 히 멀 고 나의힘 기진한 데

풍파 가 심할지 라 도 내게는평 화 있 네
 내본 향 집을향 하 여 가는길비 추 소 서

mf

메마른우 리 영 혼 에 새생명주옵 시 며

주안에 영원한 안 식 누리 게하옵소 서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바다의 주재자

(욥 38,1.8-11)

1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8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9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10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11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에 말이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마르 4,35-41)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신명 4, 39)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느님 분명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모방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AA2]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 바람과 감사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AA2]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저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하며, 일상 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님에 대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L]
- 중동 전쟁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 28,19) 말씀이 오늘 더욱 와닿았습니다. [NV1]
-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신명 4, 39)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이를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되었기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NV1]
-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신명 4, 32)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한히 넓은데, 제 Boundary 안에서 갇혀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V1]
-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신명 4, 38)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서는 굳이 왜 애써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하느님께서서는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새기며,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애쓴 신”, 하느님께서서는 왜 이렇게 처절하기까지 한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당신 가까이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이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V2]
- “명령한 모든 것” (마태 28, 20)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과 계명은 결국 ‘사랑’ 일진대 점점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면서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사랑’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구원, 장밋빛 사랑이 아니라 수고, 인내, 힘듦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를 비우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NV2]
-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저희는 이 말씀을 이번 달에 살아갈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NV3]
-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신명 4, 40) 말씀으로 기도하며, 궁극적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 아직도 저에게는 막연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은 계명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사랑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C2]
-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신명 4, 40) 말씀으로 기도하며, 항상 무엇을 청하고,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 전 많이 아프고 나니,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토록 주신 땅”이라는 말씀에서처럼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 친구, 도움을 주는 사람들, 건강 등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RC2]

- “표징”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더러는 의심하고, 표징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저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지낸 나를 반성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RC2]
- “언제나 너희와 함께” (마태 28, 20)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 반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때인 것 같아 감사하고 반모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RC2]
- “물어보아라” (신명 4, 32),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신명 4, 39),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신명 4, 40),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 28, 1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 19),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 저희는 이 말씀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C3]
-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이 불안할 때는 말씀이신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RC4]
-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신명 4, 40), 저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하며,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행복과 행운이 돌아올 것임을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TR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셀라 책 144번 '내 안에 사는 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144

내 안에 사는 이

갈라 2.20

Gary Garcia

C G/B Am Am/G F G C G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 그리 - 스도 시 - 니

5 C G/B Am Am/G F G C Fine C7

나 의 죽 음 - 도 유 익 - 함 이 라 나의

9 FM7 G/F Em7 Am7 Dm7 F/G CM7 C7

왕 내 노 래 내 생 명 - 또 내 기쁨 나의

13 FM7 G/F Em7 Am7 Bb F/A C/G G D.C.

힘 나의 검 내 평 화 - 나의 주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날을 기다리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초등부 친구들 24명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습니다. 첫영성체 교리와 미사 그리고 기도문 외우기와 고해성사 과정을 겪으며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아이들의 소감을 소개합니다.

“I feel blessed to receive my first holy communion today! May I always live in God’s faith with joy and sincerity.”

구연우 엘리사벳 Charlotte Koo, Elizabeth

“굉장히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영성체 모시는 손의 순서를 까먹을까 봐요.”

권라엘 루치아 Lael Kwon, Lucia

“I feel the power of God getting stronger by the moment.”

김남산 루카 Collin Kim, Luke

“I’m so glad to finally receive my first communion. I am thankful to my teachers and Father Oh.”

김도은 엘리사벳 DoEun Kim, Elizabeth

“In this holy moment, we shall pray in peace.”

김상현 호세아 Ashton Kim, Hosea

“In this holy moment, I feel the presence of God’s love in my heart.”

김서우 마리아 Olivia Kim, Maria

“하느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 준비가 돼 있어요. 멋지고 용기 있게 첫영성체를 마치기 바라고 있어요. 모두 첫영성체를 즐기기 바라요!”

김지안 소피아Jeean Kim, Sophia

“Thank you God for blessing me with these goods. You will stay in my heart and forever. Love, Laelle”

롤랑라엘 라엘 Laelle Rolland, Laelle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앞으로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박다인 디아나 Dain Park, Diana

“성체는 무슨 맛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어 좋아요! 매일 기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천국가서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박태양 맥시밀리언 Maximilian Park, Maximilian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해요.”

서아연 유스티나 Ella Seo, Justina

“At this special moment, I know God is in my heart.”

신유나 스텔라 Yuna Shin, Stella

“It was a difficult time, but I tried with all my heart to make my first Holy Communion. I was able to feel God’s great love, and I will always pray for my family.”

오민우 제노 Zeno Oh, Zeno

“하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용기도 주신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매일 성당에 가려고 할게요. 모두에게 매일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윤수지 수산나 Susie Yoon, Susanna

“I am really happy!.”

이지안 나탈리아 Sophia Lee, Natalia

“한국에서 첫영성체를 못 하고 와서 속상했는데 미국에서 한인 성당 다니며 더 준비가 되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연습한 게 있으니... 나 자신한테 파이팅!!”

이주원 리나 Joowon Lee, Lena

“I appreciate this moment and I am very happy. God, Thank you for everything.”

이지유 마리스텔라 Emma Lee, Maristella

“하느님과 더 가까워진 거 같아서 행복하고 설레요.”

임정훈 라파엘 Roy Yim, Raphael

“It was difficult to do class every week but cause of the class, I learned how important the commandment from God are and how to follow the commandment. I will commit to God.”

정이안 사도요한 Ian Jeong, John the Apostle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했고 축복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맘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최서윤 베로니카 Seoyun Choi, Veronica

“I will commit myself to the Lord and follow his rules and pray for him each day. I will keep my promises and work hard for my family.”

하벤자민 벤자민 Benjamin Ha, Benjamin

“I felt happy because it was fun and I learned a lot. Thank you for getting me ready for my first communion! I learned a lot from all staffs. I also made new friends in that class. Thank you.”

한세호, 김대건 안드레아 Seho Han, St. Andrew Kim

“It felt so amazing and loved to know that God was always going to be here next to me and guiding me and helping me through my life.”

하유리 안나 Olivia Yuri Ha, Anna

황동휘 헨리 Dongwhi Hwang, Henry

아이들의 첫영성체를 함께하며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려면 기도문 이~만큼 외워야 해. 할 수 있겠어?” 일, 이 초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응.”이라고, 작년 첫영성체 하는 언니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저희 딸도 영성체를 모신, 한 걸음 더 성장한 가톨릭의 어린이가 되었네요.

3학년이 되고, 옛된 티를 점차 벗고, 단풍이 들던 무렵 시작해 겨울에서야 기도문 쓰기 숙제를 마치고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던 모습에 아직 아기인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주님 말씀 안에 스미며 의젓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바람이 차갑던 어느 3월 저녁, 선생님의 당부 말씀에, 기도문을 익히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쩐 일로 학교 숙제량은 다르게, 신이 나서 눈을 이리저리 굴려 가며 읽고 외우고 또 읽고, 기도문의 뜻에 대해 아이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도 어느새 아이와 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너무나 예쁘게 핀 봄이 되고는 기도문을 다 외웠다고 신나 하는 아이와 같이 기뻐해 주고, 고백성사를 준비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첫영성체 전날에는 아이가 대목육을 해야 한다며, 혼자서 샤워부스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첫영성체날, 아이는 눈을 반짝반짝하며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초를 들고 입장했고, 신앙서약에 수줍지만 제 댄에는 씩씩하게 대답도 하고, 설레는 떨림으로 한걸음한걸음 또박또박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첫영성체를 모셨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고 항상 빨리 크네요. 벌써 주님의 사랑과 경외심을 알고, 예수님의 영이 이제 자기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니 적어도 이해하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이제 교회에서도 한 뼘 더 자란 딸이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는 성숙한 한 가톨릭 신자로서 영성체를 모시게 되어 너무나도 축하하고, 앞으로 딸의 기나긴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기를, 첫영성체를 모시던 마음을 기억하며 맑은 몸과 마음을 지켜 나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는 집에서 성가를 흥얼거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1년 동안 아이들 신앙을 보듬어 주시고 더 깊게 해주시고, 아이들 하나하나 챙겨 주신 주일학교 첫영성체반 홍영지 막달레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26일 첫영성체를 받은 24명의 아이들, 모두 축하하고, 주님 안에서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글 | 김지안 소피아 엄마 박경진 아녜스 드림



2024 5월 성경통독 월레모임 레위기 말씀과 함께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1,44)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지오 교본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레지오의 목적을 우리 자신들의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도록 내 남은 인생도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글 | 박재철 요셉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레위 10, 1-2)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겸손하게 배운 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오롯한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반성했습니다. 미사가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라면, 틈틈이 분심이 드는 산만함에서 재빨리 깨어나서 나의 기도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봉헌되기 위해, 또 미사를 통해 특별히 봉헌되는 모든 지향들이 주님 어전에 향기롭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봉헌되도록, 그리하여 바라는 은총을 바라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미사에 임해야 함을, 내가 바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마음과 몸가짐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함을 묵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 순간에 귀한 아들 두 명을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도의 표현조차 허락되지 않아 애써 아픔과 슬픔을 삼키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겨웠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 글 | 권오숙 아네스

이번에 신부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레위기 내용은 항상 읽어 내려가기가 지루해서 대부분 대충 건너뛰곤 했습니다. 신부님 강의를 통해 제사 규정에 삶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 레위기의 혁신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성경에 포함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무서운 하느님에서 정의로운 하느님 그리고 사랑의 하느님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레위기를 잘 읽어 보면 인간적인 욕망으로 타락하기 전까지 레위기는 유다 백성이 하느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포용하는 종교관으로는 긴 이집트 노예살이 이후 주변의 그 다양한 민족들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유다 백성을 지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과 가치관과 사고도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되고 저건 안돼’와 같이 아주 명확한 기준을 나눠 놓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어찌면 매우 원초적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강조하지 않았다면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판적으로 보는 유대교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은 나에게서 저들을 분리해 낸다는 우월적인 자세라기보다는 저들에게서 나를 떼어 놓아야 하느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거의 유대교 생존을 위한 자세라고 느껴졌습니다. — 글 | 민현정 미카엘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주님께 대한 불충은,

첫째,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 나서지 않고 안위를 위해 침묵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둘째, 거짓 맹세나 헛 맹세로 남과 자신과 하느님마저 기만하는 것이고,

셋째,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동족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것이고,

넷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례, 피부병, 곰팡이 등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생활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규율, 규칙, 규정 등을 신앙의 틀 안에서 명시하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1,44)라고 선포하시며, 보이는 것의 가치, 즉 인간이 만든 법에 기초한 인간의 정의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즉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의 정의가 우리의 실제 삶,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순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깨닫는 대로 미루지 않고 속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을 세우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수많은 유다 민족 안에 실로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고 계시며, 그 다양성을 창조주로서 허락하고 인정하십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세를 내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함으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운 하느님이 아닌,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글 | 박영선 테레사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레위 5,17)

“그는 완전히 배상할뿐더러 물건 값의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레위 5,24-25)

저는 고해성사 시 ‘이 밖에 제가 알지 못하는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하고 말하며 가볍게 통치고 용서를 받았다고 후련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누구를 용서한다고 감히 생각하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용서한 그 사람이 저로 인해 어떠한 상처와 괴로움을 가졌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저 혼자서 저 자신을 위해 용서해 버리고 끝내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구절을 읽으며 회개와 용서는 저 자신, 상대방, 그리고 하느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저와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지 저 혼자서 해치워 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해 버리는 것보다, 그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또 보상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저는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간직한 저만의 관계, 저와 그 사이의 관계, 저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한없는 은총을 청해 봅니다. — 글 | 김은숙 테레사